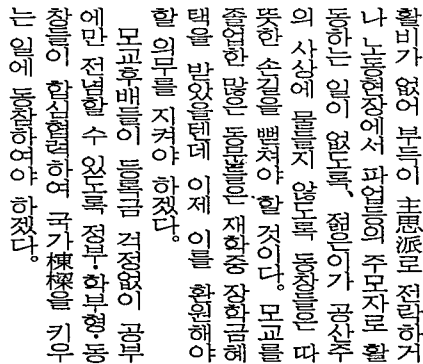




총2백25명 혜택받아

전학기대비 1천5백만원 늘어

鄭부회장 학문정진에 밑거름되길

94학년도 2학기 장학금 5백원이 지급됐다. 이는 본회를 비롯 각 단과대학 학문진흥비로 각각 지급됐던 1천4백89만1천8백원이 이번 수여된 장학금 증가한 것이다. 본회는 지난 8월17일(수) 재단법인(冠岳會)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74명에게 6천55만3천원을 비롯, 총2백25명에게 1억5천3백41만4천원을



▲장학금 수여 후 장학생을 위한 다과회를 열었다.

사, 自文基 朴英俊(간사, 李世賢) 부처장과 장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김재현(간사)은 『선배들의 장학금을 대신하여 鄭宗澤 부회장, 冠岳會 朴冠錫이 열심히 진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우선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선양하여 사회 진출 후 장학금을 후배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은사 부모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 한편 장학금 수여식을 마친 후 장학생을 위한 다과회와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 장학금 지급액은 74명의 학생마다 2백25만원으로 총 1억5천3백41만4천원이다.

- ▲看護大學 이현정(간호 2)
- ▲經營大學 김철민(경영 4)
- ▲工科大学 김명민(건설 4)
- ▲農生大學 김철현(농공 4)
- ▲美術大學 이광수(미술 4)
- ▲法科大學 김태형(법학 4)
- ▲師範大學 박종우(물리교육 4)
- ▲獸醫大學 이소영(수의 3)
- ▲藥學大學 도영미(제약 4)
- ▲音樂大學 이희정(기악 4)
- ▲齒科大學 김수현(치의 2)
- ▲家政大學 이종원(사회복지 3)
- ▲社會大學 이종원(사회복지 3)
- ▲自然大學 최은영(생물 4)
- ▲家政大學 권유진(의류 4)
- ▲獸醫大學 이소영(수의 3)
- ▲藥學大學 도영미(제약 4)
- ▲看護大學 이현정(간호 2)
- ▲經營大學 김철민(경영 4)
- ▲工科大学 김명민(건설 4)
- ▲農生大學 김철현(농공 4)
- ▲美術大學 이광수(미술 4)
- ▲法科大學 김태형(법학 4)
- ▲師範大學 박종우(물리교육 4)
- ▲獸醫大學 이소영(수의 3)
- ▲藥學大學 도영미(제약 4)

民自당무위원장 대거 진출 서울대인의 위상 드높여

전국단인 민自黨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회의의 당무위원이 重鎮으로 實勢化되면서 지난날 17일 金泳三 民自黨총재가 임명한 당무위원 44명중 절반에 가까운 20명을 同門들이 차지함으로써 國政을 이끌어가는데 同門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함께 기대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당무위원에 金泳三(대통령), 金鍾泌(대표), 本會 두 顧問과 鄭宗澤(상임부회장, 徐廷和(大入), 李漢東(文理大卒), 金宗鎬(59년 法大卒), 光州市에 李桓儀(58년 師大卒)등이 임명됐다.

崔명예회장 주치

모교교수초청 골프모임

本會 崔主鎬명예회장은 지난 8월5일 모교교수를 초청, 코리안트리클럽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崔명예회장을 비롯, 鄭宗澤(상임부회장)과 徐廷和(부회장)등 본會 임원과 金瑗東(사회대교수)의 23명의 모교재직교수들이 참석, 7초로 나뉘어 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항공우주동창회

대전지부 창립

航空宇宙工學科同窓會는 지난 7월9일 호남회관에 서인원회장을 개최했다. 한편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원, 항공3회사업구상 등에 재직하며 「남개회」라는 모임을 가지는 동료들이 최근 대전지역동문회를 창립하고 韓萬燮(문) 54년(주)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했다.

- ▲音樂大學 이희정(기악 4)
- ▲齒科大學 김수현(치의 2)
- ▲家政大學 이종원(사회복지 3)
- ▲社會大學 이종원(사회복지 3)
- ▲自然大學 최은영(생물 4)
- ▲家政大學 권유진(의류 4)
- ▲獸醫大學 이소영(수의 3)
- ▲藥學大學 도영미(제약 4)
- ▲看護大學 이현정(간호 2)
- ▲經營大學 김철민(경영 4)
- ▲工科大学 김명민(건설 4)
- ▲農生大學 김철현(농공 4)
- ▲美術大學 이광수(미술 4)
- ▲法科大學 김태형(법학 4)
- ▲師範大學 박종우(물리교육 4)
- ▲獸醫大學 이소영(수의 3)
- ▲藥學大學 도영미(제약 4)

스웨덴·노르웨이 지부 순방

동문들, 지역사회에 이바지

蔡義錫대사 동아시아박람회 축하

스웨덴지부(회장) 오인호(在스웨덴 한국문화원장)와 노르웨이지부(회장) 이종호(노르웨이 한국문화원장)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순방을 실시했다. 순방 중에는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스웨덴-한국 박람회(Scandinavian-Korea Fair)에 참가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고, 두 나라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한국 박람회(Norwegian-Korea Fair)에 참가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고, 두 나라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



▲노르웨이 지부는 창립총회를 마무리했다.

지부 창립 초임기

회장인 崔大和동문

5명으로 구성된 스웨덴지부 창립초임기 회장이자 회장인 崔大和(崔大和) 동문은 8월 28일 스웨덴에서 창립초임기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부의 운영 방침과 창립초임기 회원의 임명 등을 논의했다. 崔大和 동문은 196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창립초임기 회의를 통해, 스웨덴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韓日동문 감격적 해후

경성제대 70주년 기념

지난 7월 2일, 서울대학교 동문회(회장) 박정호(朴正浩)는 7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동문회(회장) 박정호(朴正浩)와 7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동문회(회장) 박정호(朴正浩)와 7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동문회(회장) 박정호(朴正浩)와 7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경성제대 70주년 기념 정충을 개최했다.

本會長 崔大和

崔大和 동문

崔大和 동문

崔大和 동문

崔大和 동문

崔大和 동문

崔大和 동문

崔大和 동문은 196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창립초임기 회의를 통해, 스웨덴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崔大和 동문은 196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창립초임기 회의를 통해, 스웨덴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崔大和 동문은 196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창립초임기 회의를 통해, 스웨덴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崔大和 동문은 196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창립초임기 회의를 통해, 스웨덴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崔大和 동문은 196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창립초임기 회의를 통해, 스웨덴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崔大和 동문은 196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창립초임기 회의를 통해, 스웨덴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種度 LA재무국장

남가주 지부 재무국장

정충시 金在淳 회장 초청

부산지부 간사 간담회

간사 간담회

정충시 金在淳 회장은 8월 28일 남가주 지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부의 운영 방침과 창립초임기 회원의 임명 등을 논의했다. 정충시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가주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충시 金在淳 회장은 8월 28일 남가주 지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부의 운영 방침과 창립초임기 회원의 임명 등을 논의했다. 정충시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가주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충시 金在淳 회장은 8월 28일 남가주 지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부의 운영 방침과 창립초임기 회원의 임명 등을 논의했다. 정충시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가주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충시 金在淳 회장은 8월 28일 남가주 지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부의 운영 방침과 창립초임기 회원의 임명 등을 논의했다. 정충시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가주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洪思德 국회 노동환경위원장



洪思德(洪思德)은 196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창립초임기 회의를 통해, 스웨덴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洪思德(洪思德)은 196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창립초임기 회의를 통해, 스웨덴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洪思德(洪思德)은 196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창립초임기 회의를 통해, 스웨덴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洪思德(洪思德)은 196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창립초임기 회의를 통해, 스웨덴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洪思德(洪思德)은 196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창립초임기 회의를 통해, 스웨덴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洪思德(洪思德)은 196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창립초임기 회의를 통해, 스웨덴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洪思德(洪思德)은 196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창립초임기 회의를 통해, 스웨덴에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대 19회

▲한일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마치고.

榮・興・安・泰・프라이즈·사장

시총회를 개최했다.
인사 동정보고와 동창회

상대 74동기회
경영學科 74학번동기회

이번 총회는 임원개선과
졸업25주년 기념행사준비
가 주요한 것이었으며, 흠
한편 개선된 임원을 수
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회장: 金仁濟(남지

金正優(정근우) 劉永弼(유영필)

연예계에서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아 왔던 모교출신 연예인들이 모임을 결성한 음친일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연예계의 미피아로 꼽히던 中央大(서라벌藝大출신 포항)와 東國大·漢陽大 서울藝專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위치

崔喜準(本名 成俊·59
년 法大卒)등은 이 앞장
서 추진하고 있는 이 모
임을 **崔喜準**은 『人員數
도 적당히 많아져 이제
부각되고 있다.

는 정기적인 모임을 결
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면서, 머지않아 이
를 위한 만반의 자리가
가득 차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모교출신 연예인 숫자
(84년 農大卒) 돌이 있
(76년 美大卒), 李龍培
(84년 美大卒) 裴錫坤

工業化學科同窓會
金起協選 경인더스
트리연구 소장)는
최근 모교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총동
무회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illegible]

이러 연극계에는 金東勳
(58년 美學科入)들을
비롯 金錫濟(70년 地理
學科入), 朴滿圭(54년
美大入), 張允植(88년
法大卒)들이 활동하고
있다.

歌謠界에는 崔喜準동
문을 신배로 하여 趙英
男(64년 音大入)、崔良
淑(60년 音大卒)、金昌
完(75년 農大卒)、金敏
基(78년 美大卒)、李秀
兩(78년 農大卒)등이과

인물위선, 그들 010
B의 활약중이다.
앨런트로는 李樂薦(54
년 美大入), 李順載(58
년 文理大卒), 沈洋弘
(71년 文理大卒) 등문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徐永易(佛文斗 1945)

學)군이 개그맨으로株
價를 높이고 있다.

民主化 과정에서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난다. 부총리의 상임으로 나와서도 여전히 文民정부 아래에서도 여전히突出하고 있어 걱정이된다. 최근 각종 시위의 결과 집회현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폭력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北韓의 金日成 사망 이후 우리 사회의 理會나 정의 재인식고 일부 과격한 이념화현상

李 東 和
(本報 論說委員)

하여 서울대학교 교정을 접
거한채 벌어진「제5차 범민
족대회」에서도 韓總聯宗族의
과격대화생들이 소파이프와
角木, 화염병, 돌맹이 등
로 무장한채 집회지지를 위
해 진압한 경찰과 맞서 격렬

을 벗어난 것은 아니나 미국의 대항쟁이 한 민족의 열정과 헌신으로만 볼만치 아니하고 한 고지애와 한기 마 련이다. 그러나 신천주의 경 우의 사표이지만 명백히 할렘 폭력과 거리가 멀다.

美國의 수도에 있는 한 명 문대학에서 수년간 조전 본 일이다. 1년간 대항쟁을 하 며 철학서 반민권 모노그라

거운 내영으로 별이든 데모도 마치 祝祭처럼듯 함으로 써 보는 이들의 관심과 응을 끌여내는 경이도 가끔 있었다.

다만 다수에게 불편을 주거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용서되지 않았다. 데모隊 수 십명이 한 건물 앞구 물속에 앉아 連坐를 하면서 『出入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길

이 시대의 요체였고, 이에 비해 천근의 아귀대 학 데모는 불탄채 투쟁장면이 돌보이는 이상한 것이 되고 있다. 이렇게 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다면 나쁜 사관들이 그 후배를 의도하게 된다. 대학생들의 순수한 열정과 통의열의가 맞닿아서 생긴 학생연대회가 아니라 불탄 열의가 아니라

후까지 절충 그나마의 도둑
성을 손실하고 있는 이들을
앞에 대한 국민들의 옹호의
차가울 수 밖에 없다.

이제 이 문제는 YS 政
가 國體를 위해 반드시 바
작아야 할 주요 과제로 한
단 떠올랐다. 이 문제가 장
하면, 나라의 國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자멸적인
해결될 것이다.

「전하」 손이 앓음을 직감할
게 되는 것이다. 그 배후는
최근 양파가 드러나고 있는
主恩派가 있거나 北韓에 전
도된 세력이 있다면 이가 그
통치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 정부는 그 과정에 분명
대해 보다 감히히 대처하고
폭력성을 제거하고 작인연
단단한 감을 갖고 나서고
한다.

과거 정통성의 문제가 이
면 평화 정통성이 있는 文
정부때의 과적시위를 본
국민의 시간과 정형 다다

文人기질은 先親으로부터
음악 「들여다보는」 연출가

페란 영화를 나와서 왜 오
 는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아마 대화(특히 한국의 대
 화문화)의 전통이 「전원」
 을 결정하는데 큰 작용을
 하는 우리나라 실정때문에
 그런 것이겠이다. 나로서는
 독후감과 오빠의 영화를
 페란 영화를 「가면」과 「천
 진」의 개념으로 분류하는
 어렵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어느정도까지의
 국도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법관이나 의사 혹은 화가
 나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결심을 할 수는 있어도 오
 뎀과 영화를 되겠다는

인)가 문인이었고, 서양문
화에 밝은 지식인을 가진 분
이었던 까닭에 나도 비교적
적응을 잘 하였다. 화를 접했
다. 국민화교를 틀어가기
전부터 악기를 배웠고 국
민화교 1학년때인 195
4년에 처음으로 오페라를
봤다. (정장의 잔해가 널
려있던 그 당시에도 오페
라 지음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때 가장 위안을 준 것은
4.19가 나던 해, 중학교
에 들어가면서 순바다만
전축으로 듣기 시작한
라식 음악이었다. 그런데
악기는 그만두었으나
반드시 계을 때문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 상대적으
로 게으른다는 커녕 다른
연출가로 만든 것 같다.
평생 아무런 구속도
없이, 좋은 채워고 사
는 것이 어떤 시절들
의 소원이데 대체로 기
까지 그럴 수 있었고 오
라 연출을 하자면 양악
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
는 행복한 사람이다.

대 있었어요. 외국어를 배
웠다면 어디서든 써먹을
기술이 될 것이라는 생각
이 있었을 뿐입니다. (소위
「예술」로 바뀔 버겁다고
누이 뢰진 사립학교에 보
발하는 일만 다른 기술로
하고 「예술」의 참 소용이
알아 들긴과 간절하고 설
(어진다)

「연결이 지극히 자연스러
을 뿐 아니라 돌부화를 공
부한 것을 큰 다행으로 여
긴다. 무화공부는 음악공
부와 더불어 오페라 연출
의 기본이며 독일어는 이
탈리아어와 더불어 「오페
라」와 「오페라」이기 때문
이다. 그렇기나 「오페라
결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다. 내가 오페라 연출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대
학 중반에 와서였다. (그
러나 그때는 나도 모르게
오페라 연출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故 趙豐衍)로부터

라를 공인하고 정통적인 음악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합창없이 가난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우리집은 「채부자」 집이었고 학교공부로 시달리지 않아도 되던 시절이라 나는 채과를 악소에서 살았다. 천수현의 갑수성을 마구 치질던 중교수와 시절의 내게 일을 제쳐 놓고 음악을 들게 「악관」이 되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내게 들어있는 「부인의 속선」이 음악인이 되는 것을 방해한 것 같다. 즉 나는 음악을 듣다가 보다 음악을 듣는다 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저릿잡의 유자」가 나를 유배라 세대들이 70년대의 일꾼이 되어 발세할 때 나는 유배에서 문필포식을 하되 살았으니. 또한 안한 생각도 든다. 돌과에 일할 때부터 무화과수가 될 생각이었다. 나의 관심은 구름직업보다는 무화과를 만드는 데 정해하게 되었다.

가지도 않는 것. 음악을
「연주」하되 틀어다 보면서
하는 것, 연주 직전에 나
의 모습이 감춰지는 것,
「작품」이 단 한번으로 흘
러가 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오페라 연출의 매력
이다. 그리고 보면 이것은
천진인지 모를 것이다.

서울大 同門에게 송함



趙完圭
(母校 前總長)

관악캠퍼스를 둘러싼 동문이면 그 사이의 변화에 큰 감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관악시대 이전 동문 캠퍼스에서 수학했던 동문들은 더 큰 감회에 젖게 되리라 믿습니다. 관악 새 터전을 잡은 지 20년이 돼 가지만, 관악캠퍼스 캠퍼스는 그 사이 새 건물들로 둘러싸여 되어 우뚝 솟아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나아가 젊음의 수면이 있다면 다산하면 이같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백50여개 대학이 있지만 서울대학교는 학문발견과 고인재를 양산하는 데 앞장서서 왔습니다. 關條의 과반수는 항상 우리 대학 출신이 차지하였고 오늘에 있어

학교의 수준을 높일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수준이 곧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수준을 겨냥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서울대학교가 젊고 있는 국제적 지위를 살려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대학임을 분명히 하려면 세계 대학들과 비교하여도 그럴 수 있을

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空轉된 교수들의 교육과 研究力은 매우 탁월하여 각기 국제적 수준에 있지만 이들의 의욕과 정열을 북돋아 주는 데는 부족합니다. 恒用정 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대학교육은 受惠者 부담이라고 하지 않고 그 부담을 수혜자가 국가인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의 하버드, 스탠퍼드 등은 시카고대학들이 그 나라의 1인소속이 5백달러일 때에도 세계의 선도적인 대학이었었던 것은 결국 그 나라가 적극적으로 대학을 키운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母校를 世界水準급 大學으로!

신소재 공학자 金泳吉 동문

포항의 한동대학교 金泳吉 동문은 한국인으로 신소재 금속공학에 있어 뚜렷한 족적을 남긴 과학자이다. 포항 공대 前 총장인 故金浩吉 박사의 實弟이기도 한 金泳吉은 64년工大를 지난 19일 동

의 수속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갑사합니다. 美國 국립 카네기 등 우수한 기관에서 권유하는 전문가를 10여명의 로 구성된 추천자위원회에서 자국의 과학자들을 대

그러나 10여년간 미국에서 연구생활을 했는데 그때 근무한 NASA와 INCO의 신소재 개발에 공이 크다고 추천해 통과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응용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金泳吉의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요.」

「우리는 철강, 알루미늄, 인데종교에 있어 형질의 유교였고 나는 기록교를 만났지요. 62년 부산에 파견되었을 때 형질이 기하학적 제를 출제하면 며칠씩 풀기도 했던 것이 數學實力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내가 전공을 선택할 때는 적성과 10년후 전망을 보라 하



부이충동은 한국교회에서 만났습니다. 「한글 최초도 美國 과학부의 최고 권위인 「美國의 과학자」(AMWS: American Men and Women of Science) 「人名辭典」에 실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신소재의 특수합금에 관해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A6000」을 비롯, 반도체에서는 없이는 알리드프렌인 「MCIOZ」 「INCOS」가 들어 소재인 「CAM」과 그것을 개량한 「PRK90」등

「저는 신소재의 특수합금에 관해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A6000」을 비롯, 반도체에서는 없이는 알리드프렌인 「MCIOZ」 「INCOS」가 들어 소재인 「CAM」과 그것을 개량한 「PRK90」등

「저는 신소재의 특수합금에 관해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A6000」을 비롯, 반도체에서는 없이는 알리드프렌인 「MCIOZ」 「INCOS」가 들어 소재인 「CAM」과 그것을 개량한 「PRK90」등

「저는 신소재의 특수합금에 관해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A6000」을 비롯, 반도체에서는 없이는 알리드프렌인 「MCIOZ」 「INCOS」가 들어 소재인 「CAM」과 그것을 개량한 「PRK90」등

현장서 응용가능한 기술중심 한국최초로 AMWS에 수록

「저는 신소재의 특수합금에 관해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A6000」을 비롯, 반도체에서는 없이는 알리드프렌인 「MCIOZ」 「INCOS」가 들어 소재인 「CAM」과 그것을 개량한 「PRK90」등

「저는 신소재의 특수합금에 관해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A6000」을 비롯, 반도체에서는 없이는 알리드프렌인 「MCIOZ」 「INCOS」가 들어 소재인 「CAM」과 그것을 개량한 「PRK90」등

「저는 신소재의 특수합금에 관해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A6000」을 비롯, 반도체에서는 없이는 알리드프렌인 「MCIOZ」 「INCOS」가 들어 소재인 「CAM」과 그것을 개량한 「PRK90」등

「저는 신소재의 특수합금에 관해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A6000」을 비롯, 반도체에서는 없이는 알리드프렌인 「MCIOZ」 「INCOS」가 들어 소재인 「CAM」과 그것을 개량한 「PRK90」등

「저는 신소재의 특수합금에 관해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A6000」을 비롯, 반도체에서는 없이는 알리드프렌인 「MCIOZ」 「INCOS」가 들어 소재인 「CAM」과 그것을 개량한 「PRK90」등



지난 7월 본회가 국민 신용카드사와 제휴카드조 인식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을 전한 자카르타에서 온 자재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하는 유익한 전례없이 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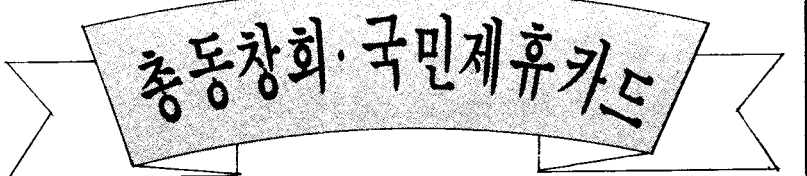
또한 실시기와 신청한 별을 본 동문들의 전 화가 풍수함으로 본회에서 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을 재삼 인식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본보에선 9월 부터 시작하게 될 이 사업 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

□명칭정의

전통으로母校가 移轉 한지 20년이 지났다. 의정으로 본다면 1백 30년의 전통이 1백35만 여명의 백군이 들어차 있고, 학생수도 2만에 달한다.

그럼에도 아직 세계에 서 8백여 개의 나후된 시설과 일본 동경대 에 산의 10분의 1에 지나 지않는 모교의 예산을 불배 의과과 비교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기까지 한다. 이처럼 참담한 현실 속에서 과연 모교는 대가없는 21세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며, 어떤 계획과 준비를 갖고 있 는지母校 기흥실 부실 장인趙秀憲의대교수를 본館 기흥실에서 만났 다.

—한명호선수가 부실



2천년대를 향해 준비하기모로



환경영향 최소화할 工大조경계획
선진대학과 상호교류 국제화지향

장남. 국제화 조류에 발 맞춰母校는 외국대학을 파 어떤 교류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90년도까지 대학단위로는 국제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개인이나 연구소들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도 조완 규총장때 시드니대학 처음으로 자매결연등의 국제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옥스퍼드대 까지 18개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타대학들 중에서도 1백여개의 외국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곳도 있지만, 대학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서울대는 단지 조인서에 사인만 하고 실의이 없 는 것을 피한다면 그 수가 적게 되었을

니다. 또한 국내대학이 로 외국대학과의 교류시 상호호혜적으로 복지등 예산과 제도가 준비되어 야 하는데 따르지 못한 여려움이 있습니다. 그 러나 서로간의 학원 상호 인정등을 통해 학생들의

게 폭넓게 공부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이 활발한 대학 과 그렇지 못한 대학간 에 형평의 문제가 아니하 므로 위화감의 조정을 수 도 있는데, 학교에서 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정말 질문입니다. 예 를들어 지원이 활발한 정영대나 그렇지 못한 인 문대들에서 나타나는 빈 이빈부의현상이 있지 만 大學본부는 기증자나 지원자가 있을 경우 그 장소들을 지정해 주며

대학의 대원은 어떤 것 이 있습니까? 『먼저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 관심을 사 람 하는 모든 분을께 사과 드립니다. 현재 대학의 정원은 수능선인 동절되 었는데 공대는 국가정책

명칭은 서울대학교총동 창회·국민제휴카드이며 본회 회원·직계가족·재학 생 및 학부노·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발행 하고 회원의 카드사용액중 신용카드사에 돌아가는 수 수익의 일정액을 서울대학 교총동창회·총동창회·국 민M&S카드 민M&S카드

□명칭정의

총동창회·국민제휴카드를 위한 신용카드를 말한다.

□발급대상

개인 총동창회·국민 신용카드, 총동창회·국민 VISA카드, 총동창회·국 민M&S카드

□발급대상

개별카드 총동창회·기업 모교 지원 사정을 위한

□특별가 서비스

제상의 혜택이 있으며 기업이나 개인 모두 기존의 혜택 이외의 교육의 혜택을 유의 서비스로 이것을 실 시된 유래가 金無한 독자 적인 것이다. 첫째는 학자 금 융자 서비스로 대학교 들(대학) (인하) (포항) (영

□신정법 및 실시시기

본회 사무처에서는 오는 9월호 동창회보에 별도로 인쇄된 신청서를 끼워 동

내에서 총 5백만 원까지 무 담보 신용 대출되는 서비 스이다. 둘째는 유명 호텔 한인 서비스로 서울에서는 리베라·조선·트네상스·위 컸호텔이며 지방에서는 부산 조선비치, 제주조 선, 유성리베라, 제주그랜 드호텔 등에서 숙박·음료 부대 서비스 합의를 해 태 있다. 셋째는 기업카 드 사용자 연사회의 일 정액을 기업의 공익목적 을 위한 기금으로 기업에게 환급해주는 서비스.

이 외에도 본회에서 유 명 백화점,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이다.

한편 본회 李世麗 사무 처장은 『서울대학교·국민 제휴카드는 총 1백만 원 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전국 의 동문들과 동문기업들의 자발적 협조만이 성공을 가릴 수 있는 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총동문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 고 당부하였다.

〈嚴

세종황제에서 개최.



▲徐柱成
(47년) 商
大卒 前
山전문대
학장 本會
理事 二
次



▲曹圭光 (48년) 文
理大卒·헌
법재판소
장·本會理
事||최근



세종에서 개최.

▲金烈圭 (54년) 文
理大卒. 인
제대교수.
|| 최근 제
1회 「수
受賞했다.

필과 비평 대상



일명보라자빌딩개관식

지날 12

대卒藝總
會長本會
副會長

(55년 齒)

▲申榮均



▲蔣祥在
(59년) 法
大卒·변호
사本會理
事|| 최근
제2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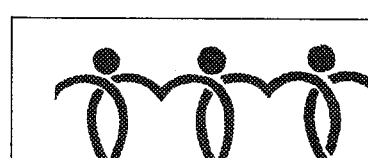
▲張水榮
(61년) 工
大卒・前浦
項工大副
總長・최
근포 회장



▲洪斗杓 (61년)
理天卒한
국방송협
회장本會
理事=최



근영철과 목동에서 방송을



이欄은 同門들의 동점을 초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 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 3회 이상 게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702) 2233～5
FAX：(703) 0755



▲李養治
(71년) 新
大院卒平
和統一諮
問會議
무국장

A(국방연구원)에서 근무.

揭示板

結婚

同窓會館 冠岳亭

*정경민군(89년工大卒)홍

*정리(88년) 文理大卒

3년
*조성규·김소영(39년)

*승태군(87년 農大卒)김

*이상수군(89년 法大卒)김

분.

수정일 9월 4일 14시

호전공인(호전공인) 1인 3인

조선양 9월 10일 12시 30

*최강욱군(84년 文理大卒)

*신상훈(93년 大學院卒)

36

전경호 1950년 1월 1일
*전경호(1931년) 社會大卒

9월 11일 12시 30분.

김귀수 양 9월 11일 14시

김동희양 9월 24일 12시

*순한실교(93년) 人文大卒

*신정출판 9월 南大출판
그아양 9월 24일 5월 30일

*안동대학교(81년 工大卒)환

*김동규군(89년 師大卒)유

*최낙준군(91년 法大卒)이



▲申讀雨 (52) 師
大卒·숙명여대교수
冠岳會理事

달 31일 수대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의심기년회를열었다.
▲朴東植(53) 法大卒·母校教授
2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년퇴임기념식과 리셉션을 가졌다.

▲羅雲龍(53) 藥大卒·母校教授
25일 정년퇴임일을 앞두고 모교 교수회관에서 고별강연회와 논문발표회를 가졌다.



▲曹圭三 (54) 師
大卒·서울사대부고교장·本會理事

날 30일 사대부고 강당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鄭煥(54) 法大卒·母校教授
25일 정년퇴임기념식과 리셉션을 세종문화회관과 리셉션을 열었다.



▲朴贊文 (57) 商
大卒·금릉절제원장·本會理事

국 최초의 聖人 엘리사벳시트의 생애와 영성을 다룬서적 「聖女 엘리사벳」 시론과 함께 하는 기도를 번역, 출판했다.

▲趙錫俊(57) 大學院卒·母校教授
2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년퇴임기념식을 가졌다.



▲金鎮福 (58) 醫
大卒·대한암연구재단이사장·本會理事

專최근 UCC 국제영화위원회 위촉 위촉, 제7회 국제인신포지움과 제3회



▲沈利澤 (63) 工
大卒·大韓航空副社長·本會理事

韓進그룹이 창립한 한진지리정보(株) 대표이사 사장으로

▲鄭夏禹(63) 農大卒·母校教授
25일 한국농촌경제학회 회초대회장에 선임됐다.

▲金正舜(63) 文理大卒·前駐美公使
25일 문리대사내에 임명됐다.

신임大法官申性澤 동문



▲申性澤 (63) 法大卒·前駐美公使
25일 문리대사내에 임명됐다.



두드러진 곳이기도 하다.

12명의 大法官 申性澤 大法官은 유일하게 師範大를 졸업한 후, 30년의 法官生活를 거쳐 1994년 9월 1일

아호인 松溪는 고향을 뜻해 유일한 師範大출신 大法官

고사하는 바람에 書面으로 인준하게 되었다.
「師大출신후 법관의 길로 나게 된 동기는...」
1960년 전후는 전공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진수하였는데 합계 한 차례도 더러 있어 사대입학시부터 뜻을 두고 있던 법관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법관」을 선택하게 되었다.

정정이라 생각되어 진로를 정한 것이다.
「90년대 들어 국제화, 다양화에 따라 사회 각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어떻게 될까요?」
「법관의 관공주의를 탈피하여 인권을 중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공직자를 지고 있습니다」
「松溪라는 아호를 갖게 된 이유...」
「산골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소박한 성품의 만능스포츠맨

친하게 4년간 어울려 다닌 2명의 친구는 모두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송성환」과 「홍기환」

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많은 수의 회원들이지만 단과대별, 계열별, 지역별 등으로 묶어 좀더 활성화되고 체계화되도록 노력해주시고 회원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희망합니다」
申性澤은 1960년 9월 1일 16회 합격 이후 대우고법판사, 서울형사·민사지원부장판사, 서울고법부장판사 및 서울형사고등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지나치지 않고 몇몇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신조로 지키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金藝姬 女史와의 사이에 3남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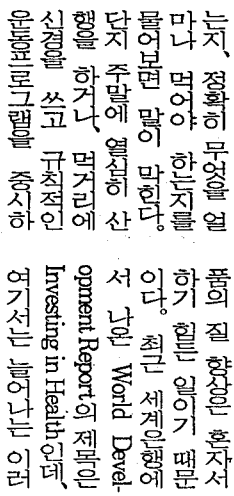
訃音

▲李寧均(44) 醫大卒·前서울대병원장·本會理事
2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李寧均은 제4, 5대 모교 병원을 지냈으며 59년 국내 최초로開心術을 도입한 후유외과분야의 개척자였다.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설립, 회장과 이사를 역임했다.
▲李範泳(89) 法大卒·在野運動家
2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41세.
李範泳은 지난 88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장, 92년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오승환(88) 大學院卒
박은중(99) 9월 25일 15시 30분.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그리고 하시는 불행 제자
하면 가요. 주 제자
을 물리쳤고 만민과 유물
을 하거나 깨닫는 환절
에서 좋은 음식과 근면한
한 신생활 스텝스였
는 건전한 생활을 하려
동행이 된다. 그다음에
가 보십시오. 만민과 유물

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모여서 흥성대는 거리였으며, 이 5번가를 거쳐서 도달하는 곳이 바로 드웨이가 되어서 이곳엔 자정을 지나 새벽 2, 3시가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뉴욕을 관광하는데 이곳을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무용전들의 거리가 되어
서야 간에는 모든 건물
은 문을 닫고 그 화려하
던 멋진 네온싸이들은
사라지고 조용한 밤거리
가 되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브루튼웨이드
하는데 물론 그 이른
은 선진국의 예를 따라
서 종래의 도심지의 나
후된 전충물들을 철거하
고 새로운 시대에 알맞
는 首都의 도심지 건설
이라는 이상을 실현코자
하는데 소모한 하지만
옛 서울의 남만은 사라
지고 서울시민의 생활을
빼앗아간 것이 이 도심
지재개발이라고 보아서

기 때문이다. 악을 쓰든
것이든, 술이나 제일 중요
한 약이다. 음식을 적
절히 먹든 것, 적절한
운동을 하든 것, 규칙적
으로 혈당검사를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관리
를 왜 하든지 아닌 것이
이 「바치발」의 5가지
핵심요소다. 이 5가지
사항으로 유지되면, 무죄
판정되는데, 환자는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혈당을 정상조
으로 유지하면, 저혈
이것이 「정상혈당」상태
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
당한 시간이 지난 후 합
혈화들이 많았을 거는
수위 「미세혈관합혈화」
이 나타난다. 두 개의 망
막(사친기의 전파총의
해당), 혈관의 노폐물들
자르든 신장(콩팥), 말
초신경들을 가장 흔히
나타낸다. 사실은 은들
의 모혈관의 끝과루 상
하는데, 이들 장기가 혈

[illegible]

年會費 내주신분

理事... 7월 12일 ~ 7월 18일
一般... 7월 12일 ~ 7월 19일

人名 姓 名 內 容
該當大學의 卒業年
度입니다.

會 長 團

▲副會長 鄭宗澤 50만 원

常任理事

▲金瑞鳳 農大同窓會長 20만 원
▲朴亨錫 環大院同窓會長 20만 원

理 事

◇ 工 科 大 學

▲康弘燮 63대 판사 연수부
▲具昌男 64대 판사 연수부
▲金敎成 65대 판사 연수부
▲金明根 66대 판사 연수부
▲金炳珍 67대 판사 연수부
▲金鳳完 68대 판사 연수부
▲金三坤 69대 판사 연수부
▲金相演 70대 판사 연수부
▲金宗根 71대 판사 연수부
▲金昌鉉 72대 판사 연수부
▲金俊淵 73대 판사 연수부
▲馬奎河 74대 판사 연수부
▲文熙成 75대 판사 연수부
▲閔景植 76대 판사 연수부
▲朴佑炳 77대 판사 연수부
▲朴載昊 78대 판사 연수부
▲朴柱千 79대 판사 연수부
▲朴準昌 80대 판사 연수부
▲朴讚圭 81대 판사 연수부
▲朴幸一 82대 판사 연수부
▲白重英 83대 판사 연수부
▲徐敏錫 84대 판사 연수부
▲徐立圭 85대 판사 연수부
▲徐廷旭 86대 판사 연수부
▲徐廷勳 87대 판사 연수부
▲石熙顯 88대 판사 연수부

◇ 農 科 大 學

▲權大旭 73대 판사 연수부
▲權五振 74대 판사 연수부
▲金東九 75대 판사 연수부
▲金武鎮 76대 판사 연수부
▲金榮鎮 77대 판사 연수부

會費납부에 솔선하는 精誠을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회비는 同窓會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一會費內譯 및 지로番號一

一般會費/ 2만원
理 事/ 7만원
常任理事/ 20만원
監 事/ 30만원
副 會 長/ 50만원 (公職者)
會 長/ 5백만원
會費入金지로번호 및 郵便對號 번호
지로번호 7500875
우편대체번호 010017-31-0621565

◇ 文 理 科 大 學

▲姜萬植 53대 판사 연수부
▲姜賢旭 54대 판사 연수부
▲高 建 55대 판사 연수부
▲郭滿燮 56대 판사 연수부
▲權 建 57대 판사 연수부
▲金 建 58대 판사 연수부
▲金德龍 59대 판사 연수부
▲金斗姬 60대 판사 연수부
▲金文鎮 61대 판사 연수부
▲金相應 62대 판사 연수부
▲金始中 63대 판사 연수부
▲金龍國 64대 판사 연수부
▲朴孟浩 65대 판사 연수부

◇ 美 術 大 學

▲朴魯壽 62대 판사 연수부
▲李種福 63대 판사 연수부
▲趙英濟 64대 판사 연수부
▲賈在桓 65대 판사 연수부
▲姜信玉 66대 판사 연수부
▲桂昌業 67대 판사 연수부
▲高光羽 68대 판사 연수부
▲琴秉勳 69대 판사 연수부
▲金慶洙 70대 판사 연수부
▲金光一 71대 판사 연수부
▲金吉永 72대 판사 연수부
▲金能煥 73대 판사 연수부
▲金德柱 74대 판사 연수부
▲金斗喜 75대 판사 연수부
▲金錫輝 76대 판사 연수부
▲金聖坤 77대 판사 연수부
▲金澤一 78대 판사 연수부
▲金榮熙 79대 판사 연수부
▲金泰卿 80대 판사 연수부
▲金平祐 81대 판사 연수부
▲金洪憲 82대 판사 연수부
▲南載熙 83대 판사 연수부
▲文相翼 84대 판사 연수부
▲閔內國 85대 판사 연수부
▲朴萬浩 86대 판사 연수부
▲朴秉禧 87대 판사 연수부
▲朴裕道 88대 판사 연수부
▲朴容相 89대 판사 연수부
▲朴一欽 90대 판사 연수부
▲朴鍾植 91대 판사 연수부
▲朴大植 92대 판사 연수부
▲朴哲根 93대 판사 연수부
▲朴哲佑 94대 판사 연수부
▲裴 渡 95대 판사 연수부
▲邊 精 96대 판사 연수부
▲孫京植 97대 판사 연수부
▲申康淳 98대 판사 연수부
▲辛國煥 99대 판사 연수부
▲申榮瑞 00대 판사 연수부
▲申長淳 01대 판사 연수부
▲申正澈 02대 판사 연수부
▲申昌浩 03대 판사 연수부

◇ 法 科 大 學

▲賈在桓 65대 판사 연수부
▲姜信玉 66대 판사 연수부
▲桂昌業 67대 판사 연수부
▲高光羽 68대 판사 연수부
▲琴秉勳 69대 판사 연수부
▲金慶洙 70대 판사 연수부
▲金光一 71대 판사 연수부
▲金吉永 72대 판사 연수부
▲金能煥 73대 판사 연수부
▲金德柱 74대 판사 연수부
▲金斗喜 75대 판사 연수부
▲金錫輝 76대 판사 연수부
▲金聖坤 77대 판사 연수부
▲金澤一 78대 판사 연수부
▲金榮熙 79대 판사 연수부
▲金泰卿 80대 판사 연수부
▲金平祐 81대 판사 연수부
▲金洪憲 82대 판사 연수부
▲南載熙 83대 판사 연수부
▲文相翼 84대 판사 연수부
▲閔內國 85대 판사 연수부
▲朴萬浩 86대 판사 연수부
▲朴秉禧 87대 판사 연수부
▲朴裕道 88대 판사 연수부
▲朴容相 89대 판사 연수부
▲朴一欽 90대 판사 연수부
▲朴鍾植 91대 판사 연수부
▲朴大植 92대 판사 연수부
▲朴哲根 93대 판사 연수부
▲朴哲佑 94대 판사 연수부
▲裴 渡 95대 판사 연수부
▲邊 精 96대 판사 연수부
▲孫京植 97대 판사 연수부
▲申康淳 98대 판사 연수부
▲辛國煥 99대 판사 연수부
▲申榮瑞 00대 판사 연수부
▲申長淳 01대 판사 연수부
▲申正澈 02대 판사 연수부
▲申昌浩 03대 판사 연수부

◇ 商 科 大 學

▲萬政雄 72대 판사 연수부
▲姜洙憲 73대 판사 연수부
▲姜信重 74대 판사 연수부
▲姜晉佑 75대 판사 연수부
▲具宣會 76대 판사 연수부
▲權東洙 77대 판사 연수부
▲權五均 78대 판사 연수부
▲權泰元 79대 판사 연수부
▲金東漢 80대 판사 연수부
▲金明浩 81대 판사 연수부

15면에 계속

14면 이의

- ▲金奉圭 62 중기공업부회장
- ▲金相均 65 한국간접전화
- ▲金相勳 66 파스퇴르유업사장
- ▲金宣中 66 (주)진로사장
- ▲金成圭 63 경남도지사
- ▲金榮壽 62 만우제사장
- ▲金潤幸 68 한국인정유리사장
- ▲金鍾國 69 보람은행본부
- ▲金鍾大 41 대전교향악장
- ▲金鍾應 69 제일은행본부
- ▲金鍾瑞 63 세보기계사장
- ▲金鍾昱 62 전반기계부장
- ▲金忠煥 67 한국전자전무
- ▲金泰球 63 대우자동차사장
- ▲金恒德 65 (주)유공사장
- ▲金洞萬 66 한국신용카드
- ▲金炯英 60 경남은행장
- ▲南相白 69 경주수자금용사장
- ▲文大源 73 코리아제록스사장
- ▲文勝永 61 두산개발사장
- ▲文哲漢 60 강원대학교수
- ▲閔海榮 60 기술진흥진흥기금
- ▲朴萬玉 62 조흥투자자문사장
- ▲朴炳烈 67 신영증권사장
- ▲朴聖熙 61 한국바인사장
- ▲朴煥緒 61 삼성화학부장
- ▲朴正植 63 통일레나은행부
- ▲徐正甫 63 흥국사사장
- ▲徐柱成 47 안진투자대학장
- ▲徐泰植 63 신일회계법인회장
- ▲成旭基 67 중흥은행장
- ▲成俊慶 63 세진(주)사장
- ▲成夏鎰 63 삼일기회사장
- ▲孫吉承 63 공평해운사장
- ▲宋吉憲 69 신한생명보험사장
- ▲宋達鎬 60 국민은행본부장
- ▲宋三錫 62 (주)모니미회장
- ▲宋仁相 63 동아이투회장
- ▲申明秀 64 동양유화회장
- ▲申鉉碩 61 신한증권사장
- ▲申熙澈 63 금강제화부장
- ▲沈大平 66 대림은행본부
- ▲安秉國 66 세진산업본부
- ▲安承喆 60 국민은행이사장
- ▲安熙重 65 국민은행본부
- ▲魚 準 64 서정물산사장
- ▲吳章煥 68 중앙일보부장
- ▲吳準熙 61 코오롱기조실장
- ▲禹贊穆 63 조흥은행본부
- ▲元武鉉 61 삼성물산사장
- ▲柳明集 69 유신교역회장
- ▲尹世極 61 정일개발사장
- ▲尹承斗 63 전남농수산은행

- ▲李甲植 63 유양기업사장
- ▲李康秀 65 한국신용평가사장
- ▲李光壽 61 산은은행이사장
- ▲李九容 65 한솔건설사장
- ▲李祺鎬 63 국민신용카드사장
- ▲李德勳 70 동흥중공업사장
- ▲李祥根 67 신용과리기업사장
- ▲李相根 61 한우개발부장
- ▲李元基 65 세우회계사무소
- ▲李一善 60 동우창업투자
- ▲李正復 68 중흥상사사장
- ▲李鍾衍 68 조흥은행장
- ▲李俊容 60 동아제약사장
- ▲李昌雄 65 화남상사사장
- ▲李昌熙 69 부산은행장
- ▲李泰得 68 신상산업사장
- ▲李泰承 44 전진은행장
- ▲李泰植 67 제일생명사장
- ▲李漢燮 60 한국전력지사장
- ▲林東昇 62 삼성경제연구소장
- ▲林秉泰 67 대림인물상사장
- ▲張武雄 66 미화당부회장
- ▲張錫鎬 65 서울개발공사장
- ▲錢源源 60 경남기업본부
- ▲全統九 65 변호사
- ▲全昌秀 61 한진중합건설사장
- ▲鄭昭永 61 고령제철연구소장
- ▲鄭仲杞 64 한국증권대체결제
- ▲鄭熙永 65 신진중합사장
- ▲趙碩 60 신일포도당부회장
- ▲趙德讓 67 신한회계법인
- ▲趙東一 64 조흥은행부장
- ▲趙元基 60 두이회계사무소
- ▲池治本 62 중흥은행본부
- ▲崔 喆 68 유신크리트회장
- ▲崔成來 63 신신증권은행장
- ▲崔秀遠 61 현대증권은행장
- ▲崔夏植 64 동아에이티시스템
- ▲河基成 62 일신산업이사
- ▲韓基徹 65 코스모스악기사
- ▲韓丙武 65 삼화화학사장
- ▲許 洪 61 한일은행시스템
- ▲黃路周 63 국회의원
- ▲黃昌基 68 전보협감의원
- ▲黃昌學 69 (주)한진사장

◆ 師範大學

- ▲權相澈 65 안양전문대학장
- ▲朴和緒 41 전신서고교장
- ▲郭厚燮 66 신영고교연합회장
- ▲金年植 65 서울대학교수
- ▲金永瓊 66 대우중교장
- ▲金在恩 64 이화여대교수
- ▲盧載敏 66 신일중사교사장
- ▲朴松子 67 KIST연구원
- ▲朴鍾遠 49 국제예식장사장
- ▲朴鍾湜 68 전남선여대교수
- ▲徐勇雄 69 한센사장
- ▲尹明烈 67 광안중교장
- ▲尹上天 61 경인여대지공장장
- ▲李寬炯 67 서울고대교수
- ▲李元淳 49 서울대명예교수
- ▲李姬鎬 60 아태평화재단이사
- ▲張忠植 62 단국대총장
- ▲鄭萬永 67 홍대부여중교장
- ▲鄭煥祺 70 단국대교수
- ▲趙 勳 65 전주교구청
- ▲趙鍾樂 66 변호사
- ▲智東詔 60 정신여고교장
- ▲崔鍾五 66 단국대법학부장
- ▲韓都淵 63 단국대정신건강의원
- ▲洪性五 64 대성병원장

◆ 獸醫科大學

- ▲金相敦 47 산양병원장
- ▲金旼燮 70 공안국
- ▲尹志炳 68 중앙가축전염병研
- ▲李昌九 63 한국바이엘화학研
- ▲林永一 64 한농동물병원장
- ▲鄭鍾華 66 서울가축병원장
- ▲趙休翼 63 강남농부가축병원
- ▲崔泳一 66 기독교반송국산부
- ▲權昌鎬 61 경희대교수
- ▲金相烈 48 안국천류터회장
- ▲金閔鍾 71 마성상사사장
- ▲金莊浩 69 세신안국
- ▲金鎮宇 68 신림안국
- ▲南忠祐 66 영림상사사장
- ▲池英一 66 신일법의원
- ▲池三峰 61 대회의원
- ▲河權益 63 삼진의료원
- ▲韓格實 41 동부시립의료원장
- ▲韓鍾徹 66 삼진의료원장
- ▲韓正哲 62 덕산병원장
- ▲咸毅根 68 서울대교수
- ▲洪永杓 68 대한결핵협회장
- ▲洪彰義 47 울산대교수
- ▲李文鎬 46 서울중앙병원장

◆ 藥學大學

- ▲裴泰雄 67 원자력병원장
- ▲高榮佑 64 산부인과의원장
- ▲郭一龍 63 서울대교수
- ▲金勝煥 65 서울대교수
- ▲金演基 64 소아과의원장
- ▲金永珉 62 서울대교수
- ▲金廣樂 66 서울대교수
- ▲金鎮福 68 서울대교수
- ▲文翰圭 67 부산대교수
- ▲朴基弘 64 부산인과의원장
- ▲朴善奎 49 의화신보회장
- ▲朴永寬 60 부천세종병원장
- ▲朴永夏 60 을지병원장
- ▲朴貞淑 60 성남중앙병원과장
- ▲白萬基 47 서울대명예교수
- ▲徐景弼 67 서울대교수
- ▲徐載鶴 63 소아과의원장
- ▲成基浩 66 한일병원부장
- ▲孔寅浩 41 전신서고교장
- ▲尹錫求 67 원자력병원장
- ▲李啓平 65 이오과의원장
- ▲李東烈 49 이내과의원장
- ▲李純鎬 63 의제의대원장
- ▲李鍾贊 63 의과의원장
- ▲李弼雨 69 이필로의원
- ▲李錫發 63 중구보건소장
- ▲張敦植 62 서부병원장
- ▲張潤錫 65 서울대교수
- ▲張益說 49 신봉제지사장
- ▲鄭敬泰 69 정경대내과의원
- ▲鄭斗英 61 서울대교수
- ▲趙三峰 61 대회의원
- ▲池三峰 61 대회의원
- ▲池英一 66 신일법의원
- ▲河權益 63 삼진의료원
- ▲韓格實 41 동부시립의료원
- ▲韓鍾徹 66 삼진의료원장
- ▲韓正哲 62 덕산병원장
- ▲咸毅根 68 서울대교수
- ▲洪永杓 68 대한결핵협회장
- ▲洪彰義 47 울산대교수
- ▲李文鎬 46 서울중앙병원장

◆ 醫科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音樂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自然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經營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工科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農科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商科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師範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醫科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藥學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音樂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自然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社會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人文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一般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法科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文理科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農科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 醫科大學

- ▲金明珠 67 주부
- ▲李相萬 61 국립예술학교
- ▲鄭佑賢 67 전신서고교장
- ▲韓相宇 62 서울예술고교과장

우정이란

「우정」이란 기쁨을 배로 하고 슬픔을 반으로 한다. 고독의 시인 실런은 말했다. 또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친구 없는 사람은 인생을 하지도 못하는 것이다」고 까지 말하기도 했다.

고,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은 생각이 조수처럼 밀려오는 것이다. 내가 고향을 떠난 지



黃山城
〈68년 法大卒·변호사〉

되어 내게 사랑을 보내 준 남자 동창생과의 교우를 빼놓고선 여자 동창생들이 누가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지 여정에 대해 통소식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군인인 남편을 따라 전역을 전전하다가 남편이 육군본부로 전임

가 벌써 20년, 동년배로서는 지나치게 금성장(金成張) 한 처지고 보니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옛 친구가 없었기에 그 재혼한 뒤를 가끔 뽀뽀한 건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나는 기자가 된 국민학교 때의 반장이나, 시인이

여자의 지

지, 왜 TGF는 그렇게 열렬 불만인지, 이런 걸 매일 생각하고 그것 이 바로 자신의 삶과 연결된다면 인생이 정말 재미있고 살만하지 않을까? TV나 영화, 공연을 보는 것이 일부 중의 하나가 된다면 말이다. 물론 이러한 문화 예술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터지만,

이 나를 또렷이 기억할 수 있는 인간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내 가 귀엽고 한참 울음에 마들씨가 고맙고, 의무기를 잘 하였고, 꼭 선생님이 줄 알았었다며 어렸을 때의 나를 회상시켜 주기도 했다. 또한 주일날이면 내가 자기집으로 찾아가서 교회로 나가자고 졸랐다고도 했다. 그래서 그때에 쓰는 신앙심으로 자기는 지금 여전히 회상까지 말고 있는데 그 때문에 나를 더욱 잊지 못하였다고도 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동창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동경하게 되고 과거의 추억에 잠기는 것은 어찌된 인생을 두 번 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인간은 추억을 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또다른 친구가 있었다. 철이 든 뒤의 내게는 그녀가 유일한 친구로서, 언제나 평범한 것이 사실을 꿈꾸던 때 1993년 삼성전자 나이세스 사업부를 발족

기쁨은 배로 슬픔은 반으로

범하고 영리한 여자였다. 내가 괴로와 쓰러지려고 했을 때, 진지한 우정으로써 나를 인도했던 친구였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잊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추억이 되어 버렸다. 내가 괴로와 쓰러지려고 했을 때, 진지한 우정으로써 나를 인도했던 친구였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잊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추억이 되어 버렸다.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인해 그 잠재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관련 시장이 미미한 점에 비해 해외 시장이 매우 활발한 점을 보면, 국내 관련 업체들은 아직 절충한 단계에서 국제 경쟁력은 커녕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만하게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심세하고 감각적인 요소를 더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성들은 감성적이고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타 상품과는 달리 이러한 무형상품의 개발 및 제작에서 남성을 못지않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기획, 제작뿐만 아니라 마케팅 면에서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넘쳐났다. 특히하고 발빠른 신세대 여성 인력이 이 분야에 빨리노를 띄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문화 상품을 개발, 보급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무한한 소비지니스 세계

여성의 섬세한 감각요구



金香蘭
〈87년 人文大卒·삼성나이세스〉

인문트 소프트웨어의 제작 및 관련 사업을 사업적 시각에서 접근하면 대기업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다. 방조 하드웨어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자체만으로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갖게 되자, 대기업들의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

중요도 말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기 마련이며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또한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담아내는 CD-Rom CD-I 비디오 CD VOD HDV 유선방송 위성방송 같은 멀티미디어로 인해

과유가 80%만 맞아 떨어지므로 접근구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자신의 하는 일이 좋아서 하고 그것이 자신과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개성과 자아, 창조적 마인드가 그 일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회사측으로부터 철저하게 보장받고 존경받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한번 해볼만하지 않겠는가? 「끼」를 발휘하도록 나서서 명성을 퍼주는 그런 데서 말이다.

「우정」이란 기쁨을 배로 하고 슬픔을 반으로 한다. 고독의 시인 실런은 말했다. 또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친구 없는 사람은 인생을 하지도 못하는 것이다」고 까지 말하기도 했다.

「우정」이란 기쁨을 배로 하고 슬픔을 반으로 한다. 고독의 시인 실런은 말했다. 또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친구 없는 사람은 인생을 하지도 못하는 것이다」고 까지 말하기도 했다.

「우정」이란 기쁨을 배로 하고 슬픔을 반으로 한다. 고독의 시인 실런은 말했다. 또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친구 없는 사람은 인생을 하지도 못하는 것이다」고 까지 말하기도 했다.

新刊

■ 한국 맛있는 집 999店
- 洪性裕 別味旅行(上·下)



小説家로서 명성을 떨쳤던 洪性裕(48년 法大入) 동문이 한국 입맛의 大家로 자리를 굳히면서 전국 유명 음식점을 골고루 섭렵, 추천해

온 것은 78년 「맛과 멋을 찾아서」를 일간지에 연재하면서 비롯된다.

이 책은 각지역별로 유명음식점을 소개하면서 음식의 특징과 값까지 소상히 열거하고 있어 독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을뿐더러 食道樂의 指南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食文化의 古典으로 새로운 里程表를 세워 매스컴이나 각종 잡지에서 別味여행의 原典구실을 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로 하여 유사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는 현실이다.

요즘처럼 '마이카 시대'에는 손쉽게 가족과 더불어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다는 일은 삶의 즐거움중 하나일 것이기에 값싸고 맛있는 食道樂여행에 필수서이기도 하다. (문화수첩刊 값 각권 7천원)

■ 달력 이야기

- 韓甫植(嶺南大 명예교수) 著



달력에 대한 상식을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해설한 일종의 曆書이다.

著者は 50년 工大를 졸업, 대학에서 化學工學을 가르치면서 專攻

은 아니나 이 著書를 통해 평소에 관심을 갖고 太陰曆과 太陰太陽曆, 그리고 太陽曆등의 기원과 장단점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서 陽曆過歲와 太陽曆을 사용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음력은 우리나라에서 참출해 사용된 것도 아니며 丙子胡亂후에는 三田渡에서 淸國의 強要에 따라 음

력을 사용해 왔고 日帝時엔 일본식 음력을 사용해왔던 수치심의 대상이었던 것일뿐, 「우리의 달력」이나 자랑스런 전통의 유물이 아니었던 것을 논증하고 있다.

현대와 같은 국제화시대에 세계의 절대다수인 文明國이 사용하고 있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太陽曆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무리없이 주장하고 있어 일독할만하다. (嶺南大출판부刊·값 6천원)

■ 소설 대동여지도

- 鄭昭盛(檀國大 교수)



東仁文學賞 수상작가 鄭昭盛(69년 文理大卒) 동문이 古山子 金正浩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까지의 어려운 역정을 소설로서 리얼하게 그

린 전4권의 大河物이다.

著者は 이 소설을 집필하기 위해 오랜기간 자료수집에 열중했고 한반도 이남의 땅을 古山子의 발자취를 따라 苦行을 하면서 국토의 아름다움에 心醉했고 인간의 의지와 집념이 얼마나 질기고 무서운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 방대한 소설속에 실려있는 갖가지 지리적 사실을 소설화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考證과 확인을 거쳐 위대한 민족의 유산을 작품화하는데 심혈을 쏟았고 사실성에 치중하면서 흥미진진하게 픽션화하고 있다. 金正浩의 답사현장을 리얼하게 그리면서 사실화시켰다는데 著者の 역량이 놀랍다. 국토의 새로운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소설은 획기적이다. (자유문화사刊 값 각권 5천원)

■ 퍼지적 시간을 열자

- 黃義淳 著



76년 法大를 나와 韓進海運(임사부장)에 재직하고 있는 著者가 21세기 韓國型 신비람 時間文化의 창조를 제안한 著書를 出刊

黃동문은 이 저술에서 외국의 첨단경영이론을 짜깁기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전

통을 첨단이론들 속에서 살려내 새로운 한국형 신비람 시간문화이론을 창조해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著者は 이 책에서 『퍼지이론이란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변화상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부드럽고 유연한 퍼지적 시간이론』이라고 정의하고 이 이론은 역동적이고 모호한 어떤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갈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간에 있어서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黃동문은 각 기업체에서 느슨하고 퍼지적 시간관리를 도입할 경우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창의적인 업무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문화의 새 章을 열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도서출판 사차원·값 5천원)

公演



■ 朴文淑 귀국 獨唱會

- 9월 22일 세종회관 소강당

평화방송과 모교 音大동창회가 후원하여 개최되는 朴文淑동문(81년 音大성악과卒)의 소프라노 귀국 동창회가 세종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83년 독일 장학생으로 유학, 프라이부르크 국립음악대 석사과정과 오페라 과정 졸업후 슈트트가르트 음대 독일예술가곡 마이스터 과정을 거쳐 자르브뤼켄大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한 재원이다.

朴동문은 유럽등지에서 오케스트라와 80여회의 솔리스트로 연주회를 가졌으며 92년 7월에 열린 롯데니 2백주년 기념음악제에서 2곡의 롯시니 칸타타를 初演하고 CD레코딩했다. 또한 90년 창단된 현대음악의 전문연주단체인 Solist Vocalensemble "Coloratura"의 멤버로 활약했다.

■ 金璇英귀국 첼로獨奏會

- 9월 27일 예술의 전당

86년 音大卒, 뮌헨音大를 거쳐 만하임 音大에서 碩士학위를 받은 촉망받는 첼리스트로 유학중인 에르딩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金동문은 작품해석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부드러운 연주기법으로 하여 독특한 음악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날의 연주곡은 바하의 첼로솔로를 위한 6개곡과 보체르니, 슈만, 마르티누의 곡을 연주한다.

현재 群山大와 계원예고에 출강하고 있으며 서울내셔널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수석연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 曹秀美 歌曲集 出盤

「神이 내린 목소리」로 성악계에서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曹秀美(本名 秀卿·82년 音大入)동문이 「꽃과 새, 고향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이세스 클래식이 펼치는 첫 작품집을 출반했다.



금난새 지휘로 54인조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아 제작한 曹동문의 가곡집은 우리 가곡을 위주한 음반으로 李興烈曲의 「꽃구름속에」, 金東振曲의 「수선화」를 비롯 「동심초」, 「님이 오시는지」, 「그대 있음에」등 16곡이 실려 있다.

母校



공과대학-중국청화대학
국제협력교류 협정체결
工科大學(학장 鮮于仲) 국제협력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중국 북경에 위치하고 있는 청화대학은 학생 1만 4천여명, 교수 3천 9백여명의 공과대 중심 종합대학으로 이공계 관련 대학으로 중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이다.

공과대학은 이 협정에 의거, 앞으로 양대학간의 실제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공학발전의 양자가 함께 공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엄정한 심사후 입주업체 결정 국내외 産學研 공동연구 가능

모교에서는 産學研(一)에 대한 참여 신청을 지 동연구단체인 「서울대연구단」(SUN Research Park) 했다.

그동안 모교는 50대 기업 그룹 및 2대대 개별기업 등을 포함한 국내외 대부분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55개 외국기업에 연구공동체 참여신청 안내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참여신청 접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교는 이들 중 자체기준에 따른 엄정한 선정과정을 거쳐 입주업체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대연구단(연구단)은 본회 金在淳회장도 같은 관심을 표명한 이번 연구공동체 추진사업에 대해 기업들이 많은 문의와 참여의사를 나타내며, 모교를 통해 신청한 기업은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17명 정년 퇴임

지난 8월 31일자로 17명의 교수가 정년 퇴임했다.

서울대연구공원 참여신청 마감



▲지난 8일 대학원생기숙사 기공식이 있었다.

入試정원 50%면접선발

대학원 95학년도부터 실시키로

표했다.

개선에 따라 96학년도 1학기부터 현재 11월중에 한차례 필답고사로 선발하는 50%이내에서 서류선형과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50%이내에서 선발하는 대학원 입학시험을 전면 「대학원 입학고사」로 개편할 방침이다.

접 및 구술시험(50%이내)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또 11월 실시하는 2차 모집의 경우에도 현재 필답고사와 위주로 돼 있는 전형 방식을 개선, 필답고사(50%이내)와 함께 면접 및 구술시험을 50%이내에서 반영토록 했다.

대학원 기숙사 2棟반기증 安秉鈞회장 40억들여 起工

대학원생기숙사의 기반조성과 대학원생들의 후생보존을 위한 기숙사 2棟을 위한 기공식이 8월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 연구공원(서울대연구단)에서 있었다.

안회장은 기공식에서 「대학원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LAN시설을 구축, 자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95년 10월 31일 완공될 예정이다.

교수평가제 2학기 시행 연구실적 승진 등에 반영

모교는 지난 20일 교수들의 연구부담, 조성과 교육 및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해 「교수연구관리평가제」를 2학기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趙東午씨 65세로 37년만에 복학 언론계서 잔뼈 굵은 베테랑 기자

우계된 48학번 趙東午(대명제지산업사장)는 6.25전쟁에 51년 3개월을 마치고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채씨는 이후 57년 재능을 행한 이 후 37년만에 재입학했다. 이씨는 신문기자로서 37년간의 재입학을 신청, 오는 2학기부터 수료되는 90년대 학번으로 있다.

학번들과 함께 수업을 받게 된 것이다. 복학을 망설이던 채씨는 가족과 정치학과 동창회, 강연과 1년후바로 정치학 사인인 모교 金榮國교수의 권유로 원서를 냈고, 이번 학기에 학점을 이수하면 내년 2월 졸업하게 된다. 채씨는 정년이 끝난 후인 54년 조선일보 수습기자로 입사하면서 기자생활을 시작, 한국일보를 거쳐 중앙일보 일보로 74년 중앙일보 편집장직을 지낸 베테랑 언론인이다.